

2021 신축년 태사묘 추향대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가 주관하는 2021 신축년(辛丑年) 태사묘(太師廟) 추향대제(秋享大祭)가 9월 26일(음력 8월 20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13(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9月 임원 회비 납부 내역	
부 회 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2,000,000
권용기 상임위원(대전)	1,000,000
권태복 상임위원(서울금천)	1,000,000
권기식(서울서초)	1,000,000
권오강(서울양천)	1,000,000
권태균(서울구로)	1,000,000
총무위원	
권영도(부정공파회장)	1,000,000
이 사	
권재호(산청)	300,000
권정택(상주)	300,000
권두현(수원)	300,000
권영식(인천)	300,000
총 : 9,2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이날 김황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휘동 전 안동시장 겸 안동김씨화수회장, 권영길 전 경북도청 복지국장, 권기창 국립 안동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예년 같으면 추향대제 때 참제원이 100여명 참석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을 최대한 줄여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제원이 태사묘에 들어설 때 마스크 쓰기, 열 체크, 연락처 전화 등 기초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참제원 분정(分定)은 태사묘 숭보당(崇報堂)에서 북악공파 부회장인 권기갑(權奇甲)이 담당하여 헌관(獻官), 제관(祭官), 참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서 집사분정(執事分定)을 마쳤다. 집사분정은 초헌관 장희경(張熙慶, 전 안동장씨총회장), 아헌관 김진구(金振求), 종헌관 권정창(權正昌, 안동권씨 제례위원장), 축관(祝官) 장인백(張仁伯), 김준기(金俊基), 권혁근(權赫根), 찬자(贊者) 장은주(張銀周, 태사묘 운영위원)가 업무를 각각 맡아 1시간에 걸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장은주 찬자의 훈기(勸記)에 따라 참제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낮이 되자 기온이 올라가 더위를 느낄 정도로 무척 더웠다.

헌관, 축관,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를 같이 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봉행이 끝나자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숭보당에서 음복례를 한 후 참석자 전원은 숭보당과 동재(東齋), 서재(西齋)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한편 이날 안동콘텐츠박물관 직원 4명이 삼태사 추향대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느라 온갖 정성을 쏟기도 했다.

보도부장 권영근

권해옥 대종회 회장 ‘정치와 인생’ 회고록 출간

권해옥 대종회 회장이 『정치와 인생_정강靑岡 권해옥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동안 순탄치만은 않았던 정치역정을 지지해주고 젊은 시절 여러 직장 동료들과 MBC문화방송 감사로 몸담고 있을 때를 비롯해 13·14대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사장, 헌정회 사무총장,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선후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2011년 먼저 자전적 에세이로 출간했던 『정치의 현장, 단상의 포효』라는 책의 후속편으로 발간한 것이다.

권해옥 회장은 1971년 40대 초반에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화당 공천을 받아 경남 합천군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출마하며 정계에 투신한 이후 거듭된 낙선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초지일관 도전하여 17년 만에 드디어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제14대에도 거듭 재선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7명의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보기 드문 기록이다. 정당은 공화당, 민정당, 새누리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국민의 힘 등을 소속으로 하여 사무제1부총장, 원내 수석부총무, 정책위원의 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하며 활동하였다. 현재는 80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 고문과 대한노인회 고문 및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권해옥 회장의 정치 역정 중 주목할만한 역할로는 1993년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제14대 국회에서 민자당 사무제1부총장으로서 '재산공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적폐정산에 부응하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산공개에 따른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실사에 착수한 후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최후통첩을 하는 등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심 없이 각고의 노력 끝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였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또한 국회 5공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입법안으로는 1951년 6.25 전쟁 중 719명의 양민을 무차별 집단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해 1995년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천신만고 끝에 국적으로 통



권해옥 회장

과시켜 역사에 물결뻐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역사바로세우기에 일조한 사실이 눈에 띈다.

특히 1990년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어려운 문화부장관에게 임진왜란 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권율장군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고향 군수가 주관하고 있다. 흔히 '바다에서는 이순신장군, 육지에서는 권율장군'이라고 지칭하듯이 두 분의 공적은 격차가 없는데 이순신장군은 문화부장관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격차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문화부장관이 직접 행사를 주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주관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해에는 직접 참여하여 여론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하여 수원 정자지구 등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특히 고향인 함천읍에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공아파트 182세대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원로 국회의원들의 복지문제와 헌정회 발전에 힘을 쏟았다.

2017년에는 안동권씨대종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100만 족친의 마음과 뜻을 모아 안동 권문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권율장군 행주대첩제를 국가기념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등 안동권씨 대종회 임원들과 함께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와 안동권씨 100만 족친의 대표격인 각 종친회 임원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일반시민 1만여 명이 서명한 건

의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 문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역사적 위인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2019년 추향제에는 600여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족친들이 참여하였다. 대종회에서는 권영렬 고문과 권오록 고문이 각각 1억원의 기탁금을 기반으로 능동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날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평창공은 400~500년 동안 실전되었던 시조 묘소를 찾은 공이 있고, 학림공은 풍산류씨들과의 산소 분쟁에서 기발한 기지로 산소를 수호한 공이 있는 선조이므로 두 분의 공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또한 2020년 추향제 때에는 시조 태사공 묘소 집입로 입구에 시조 묘소 표지석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2020년 5월 정기총회에서는 제18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재추대되었다.

권해옥 대종회 회장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뜨거운 가슴과 발로써 정치현장을 뛰었던 살아 숨쉬는 리포터와 같은 진술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라고 솔회한다. 김충필 전 국무총리는 '정치의 현장' 격려사에서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성공을 거두고야 마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곳에서는 해박한 식견과 정연한 논리로 끈기 있게 상대를 설득하는 뛰어난 논리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평가한다.

권해옥 회장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작은 보람을 찾고자 책을 출판했다고 말한다. 좌우명은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檢校公派 派祖秋享祭 및 定期總會 案内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종회에서는 파조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고 참제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壇前(단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안 건

1. 검교공파 파보 발간, 배부 종결로 결산보고 및 추진위원회 해산 건
2. 기타 토의. 끝.

- 추향제 일시 : 2021年 10月 16日(陰曆9月11日 中丁日) 토요일 오전 10시
- 추향제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351 파조단소 (주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길 114-14)
- 회장 권무탁 010-3538-3515 총무부장 권영호 010-9355-2968

安東權氏檢校公派宗會 會長 權 武 倬